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기 범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한 회화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전 다 빈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한 회화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권 기 범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전 다 빈

인 준 서

전다빈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본인 작품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를 통한 회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시와 소설을 써왔으며, 글을 회화 작업에 옮기면서 글과 이미지의 관계를 통해 회화를 고찰하게 된다. 연구자는 회화가 텍스트와 이미지의 중간에 놓여있고, 연구자는 이 가정을 토대로 삶을 관조, 관찰 하고 회화를 그려나간다고 여긴다. 연구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연구자 창작물들은 소설, 텍스트와 이미지의 경계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며 작업을 시도한다. 이러한 실험은 소설을 쓰는 과정과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동시에 해보기도 하고, 분리하여 진행해보기도 하며 상호관계를 알아본다.

연구자의 산문 글은 누군가의 밀접한 이야기들의 파편을 가져와서 쓴다. 때로는 존재 이유, 사회적인 현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이야기 등이 작업의 내용이다. 살아가는 모든 것, 순간, 존재의 의미 등을 비유와 은유 혹은 직관을 통해 풀어내고자한다.

연구자는 언어들을 기록하고 체계화하며 허구로 소설, 시 등 다양한 이야기를 구축하고 이러한 지점을 회화, 이미지로 치환을 한다. 회화는 창작의 산물이다, 소설과 시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언어로 대화하고 만들어지며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그 허구는 정말 현실에 기인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허구의 세계에서 진짜처럼 느끼는 것이다.

2016년에서 2019까지 어떤 내용을 정립하려 하는지, 어떤 표현으로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보여주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텍스트와 이미지의 표현	3
1) 산발적 드로잉	4
2) 오드라텍, 테이블	13
3) 밤과 소행성	18
4) 그 외의 실험	27
III. 결론	35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문과 문이 아닌 것, 45x53cm, 순지에 채색. 2017
- 【작품 2】 뒤집어진 의자, 45x53cm, 순지에 채색, 2017
- 【작품 3】 실질적인 공간 1, 53x43cm, 장지에 채색, 2017
- 【작품 4】 실질적인 공간 2, 53x43cm, 장지에 채색, 2017
- 【작품 5】 휘청휘청 27.9x21cm 트레이싱지에 드로잉, 2017
- 【작품 6】 겨우 존재하는, 순지에 채색, 193x130cm, 2017
- 【작품 7】 누군가의 77페이지 마틸다, 책 위의 드로잉, 27×20cm, 2017
- 【작품 8】 누군가의 77페이지 145x112cm 순지에 채색, 2017
- 【작품 9】 오드라텍 프란츠 카프카-1, 35x26cm, 아트지에 드로잉, 2017
- 【작품 10】 오드라텍 프란츠 카프카-2, 35x26cm, 아트지에 드로잉, 2017
- 【작품 11】 Table, 29×21cm 트레이싱지에 드로잉 2017
- 【작품 12】 Table 2, 29×21cm, 트레이싱지에 드로잉. 2017
- 【작품 13】 Table 3, 29×21cm, 트레이싱지에 드로잉, 2017
- 【작품 14】 Table 13, 29×21cm, 트레이싱지에 드로잉, 2017
- 【작품 15】 Table 14, 29×21cm, 트레이싱지에 드로잉, 2017
- 【작품 16】 밤에 대해서 #1, 53x45cm, 순지에 채색, 2017
- 【작품 17】 밤에 대해서 #2, 53x45cm, 순지에 채색, 2017
- 【작품 18】 밤에 대해서 #3 53x45cm, 순지에 채색, 2017
- 【작품 19】 관계 #1, 192x132cm, 장지에 채색, 2018
- 【작품 20】 관계 #2, #3 willing n dealing <멤도는 것> installation, 장지에 채색, 209x152cm, 2018
- 【작품 21】 불일치(부제 밤), 123x111cm, 장지에 채색, 2018

- 【작품 22】 밤과 새벽, 118x78cm, 트레이싱지에 채색, 2018
- 【작품 23】 이행하는 시간 118x90cm, 크라프트지에 채색, 2018
- 【작품 24】 소행성#1 53x45cm, 장지에 채색, 2017
- 【작품 25】 소행성#2, 53x45cm, 장지에 채색, 2017
- 【작품 26】 소행성#3, 53x45cm, 장지에 채색, 2017
- 【작품 27】 소행성 #4, 89x70cm, 트레이싱지 채색 2018
- 【작품 28】 소행성 #5-1, 96x65cm, 2합장지에 채색, 2018
- 【작품 29】 소행성 #5-2, 96x65cm, 2합장지에 채색, 2018
- 【작품 30】 소행성 #6, 152x209cm, 장지에 혼합재료, 2019
- 【작품 31】 이탈자 전시 installation, 복합문화공간 빈칸, 2018
- 【작품 32】 응어리 #1, 118x78cm, 트레이싱지 채색, 2018
- 【작품 33】 응어리 #2, 118x78cm, 트레이싱지 채색, 2018
- 【작품 34】 element of anxiety, 193x130cm, painting on paper, 2019
- 【작품 35】 자유형1, 25x21cm, painting on paper, 2019
- 【작품 36】 자유형2, 25x21cm, painting on paper, 2019
- 【작품 37】 자유형3, 25x21cm, painting on paper, 2019
- 【작품 38】 자유형4, 25x21cm, painting on paper, 2019
- 【작품 39】 레트로붕황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installation, 혼합매체 가변
설치, 2019
- 【작품 40】 레트로붕황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installation, 혼합매체 가변
설치, 2019
- 【작품 41】 사랑의 존재, 가변크기, 혼합매체, 2019
- 【작품 42】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문예부> 강보란 외 13명 케이크와 얼음
조각과 물고기와 갈대 (창작프로젝트), 가변크기, 혼합매체, 2019

도 판 목 차

- 【도판 1】 막스 에른스트(삽화) · 앙드레 브르통(글), 「제2차 초현실주의 선언문」의 속표지, 1929

I. 서 론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작된 연구자의 작품을 토대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상호 관계성을 고찰하고 그 과정을 통해 회화를 바라보고자 한다. 작업한 결과물은 년도 순으로,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본론 텍스트와 이미지의 표현에서는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서술한다. 1) 산발적 드로잉에서는 연구자가 2016년도 창작한 글과 이미지를 전개하고 텍스트와 이미지 작업을 하면서 연구자가 가지는 회화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2) 오드라텍, 테이블은 작품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던 텍스트와 인물 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3) 소행성과 밤에서는 텍스트를 기저로 작업하기도 하고 분리하여 시도해 보기도 하며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본다. 4) 그 외의 실험에서는 연구자가 회화와 설치적인 요소를 가미한 실험들과 레지던시를 통해 진행하였던 프로젝트 등을 기술한다. 결론에서는 연구자의 논문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가변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정답은 늘 없으며, 자신의 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새로운 것은 없다는 좌절을 딛고 생산하기는 쉽지 않다. 연구자는 자신을 잃지 않고 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소설 속 주인공 같다고 여겨졌다. 늘 똑같이 보이더라도 어느 날 불현듯이 낮설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 연구자는 곱씹어보고 다각도로 사유해보려고 노력한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퍼트려놓은 시리즈를 묶어서 위 텍스트와 이미

지를 논문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작품을 어떻게 구성하고 생각 하는지에 대해 2016년 작품들부터 지금까지 작품들을 차례대로 전개한다. 그 과정에서 내용과 표현에 대한 과정을 볼 수 있으며 내용의 틀 위에서 자유로운 표현 방법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 가지로만 점철되지 않고 다양한 시점으로 보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하고자 하며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정리와 앞으로 창작하고자 하는, 확장하고 싶은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II. 본 론

텍스트와 이미지의 표현

연구자는 유년 시절부터 글을 썼다. 경험, 무의미한 질문과 생각, 탐구로 허구의 글을 창작한다. 주로 경험을 넘어서고 보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 소재,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 개인적인 경험, 생각들을 바탕으로 조합하여 이야기를 만든다. 연구자에게 회화는 소설 같으며, 때때로 시 같이 다가온다. 시와 소설은 마치 그림 같다. 비유와 은유를 할 수 있으며 그 자체를 삼키고 받아들여야 한다. 연구자는 문학과 미술을 교차하는 지점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가정했다. 이러한 가정을 하게 된 것은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쓴 글을 조형 언어로 작업을 시작한 이후부터이다. 여기서 말하는 쓴 글은 소설어라고 칭할 수도 있다. 소설어는 호사카즈시의 『소설 네 열정을 바쳐라』에서 볼 수 있다.

“큰일이기 때문에 큰일이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소설이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언어(A)를 사용하여 언어(B)로는 전달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소설이다. A의 말은 ‘소설어’, B의 말은 ‘일상어’라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소설어’란 지금까지의 소설에서 사용되어온 어휘나 표현, 사고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말하는 ‘소설어’란 좀 더 자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언어, 좀 더 개성이 있는 언어를 가리킨다.”¹⁾

연구자가 인용한 호사카즈시의 『소설 네 열정을 바쳐라』에 소설어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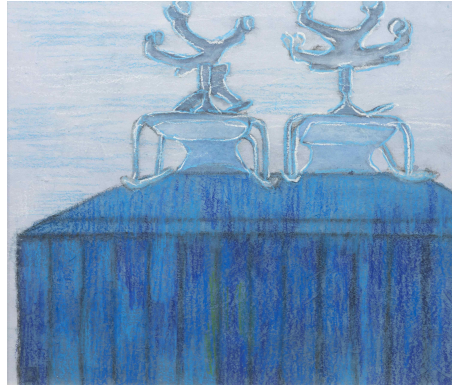
1) 소설 네 열정을 바쳐라, 호사카즈시 지음 정재윤 옮김. 섬앤섬, 19p

설명과 같이 연구자는 회화는 자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언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사고의 교차가 연구자의 가정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연구자의 글은 회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글을 쓰고 있지 않았고 소설이나 시를 쓰던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이다.

1) 산발적 드로잉

연구자는 2016년부터 텍스트를 회화에 옮기기 시도했다. 본인은 텍스트를 다양한 방향으로 표현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그 결과 생각이 휘발되기 전에 빠르게 담아낼 수 있는 드로잉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2016년부터 연구자가 쓴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미지화를 빠르게 시키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2017년 작업은 이러한 시도들로 많은 갈래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해서 삶의 존재 의미, 창작에 대한 고민 등 종합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어우러짐을 회화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자는 언젠가 완성될 소설의 한 부분이 될 것을 쓴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지로 표현해보기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연구자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읽을 수 없도록 장치들을 만드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틀, 형식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기도 하고, 연구자의 그림에 의미를 장치적으로 담기 위함이기도 하다.



【작품 1】 문과 문이 아닌 것, 45x53cm, 순지에 채색. 2017

【작품 1】은 글과 이미지의 경계를 허물어보자는 생각을 굳힌 뒤 시작한 작업이다. 문(文)과 문(問)과 문(門)의 형태와 사각형을 교차 시켜 표현해보았다. 문의 중의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물을 많이 머금고 사각형을 그렸고 의도적으로 크레파스를 사용하여 문고리의 위치를 바꾸어 배치했다.



【작품 2】 뒤집어진 의자, 45x53cm, 순지에 채색, 2017

【작품 2】에서는 연구자가 여름에 길을 지나가다가 버린 의자를 발견했는데, 글을 쓰기 위해 찍어둔 사진 중 하나를 습작했다. 소설 속 주인공이

장맛날 비에 젖어 본 풍경은 어떠할까, 그것의 형태를 관찰하며 느껴지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스케치한 후 분채와 튜브 물감을 섞어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만들었으며, 크레파스로 선을 따고 색을 채워 넣었다.

2016년 연구자가 창작한 산문 <멀미 묘사하기>는 아래와 같다.

관자놀이 속에 마귀가 끼든 것인지도 모른다. 마귀가 머릿속을 콧
움켜쥐고 정신없이 흔들어댔다. 아래를 보면 바닥이 일어났고, 고개를
들면 천장 내려앉았다. 머리 밖으로 눈알이 굴러 나왔다. 눈알이 팽팽
뛰어다닌다. 몸이 젖은 빨래 같이 축 늘어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발걸음을 떼려 하면 중력이 발을 잡고 늘어졌다. 입술을 뜯었다. 살점
이 뜯겼고 피가 났다. 비릿한 피는 비 냄새 같기도 했다. 비는 얼얼한
입술 같이 내렸다. 발자국에 놀란 빗방울들은 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올랐다.

연구자의 작업 글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다가 아니라 시작인지 끝인지
모를 산문 <멀미 묘사하기> 와 같은 글이 많다. 이러한 것은 기호학에 공
헌한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의 즐거움』에서 연구자가 사유
하는 텍스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텍스트는 그 소비에서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 생산 속에서 탈장소적
이다. 그것은 하나의 화법도 허구도 아니며, 시스템은 그 안에서 넘쳐
흘러 해체된다. (이 넘침, 이 벗어남이 곧 시니피앙스이다.) 이런 탈 장
소적인 것으로 텍스트는 어떤 괴상한 상태 -동시에 배제되고 평화로운
-를 취하여 독자에게 전달한다. 언어들의 전쟁중에도 조용한 순간은
있을 수 있다. 이 순간이 텍스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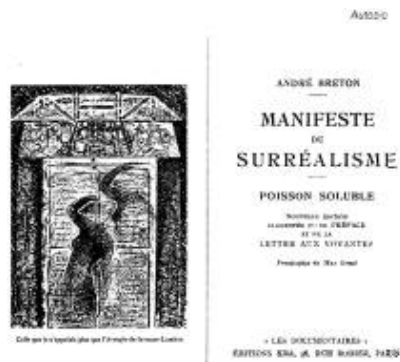
연구자가 텍스트를 조형 언어로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회화 역시
텍스트와 같은 맥락을 이어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는 2017년
도 연구에서 더 활발히 활용하여 작업하였다. 직관적으로 느껴진 감정이나

상황 등을 비유, 은유를 통해 텍스트를 만들었다.

연구자의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고민은 산발적으로 습작을 하면서 얼핏 보면 연결고리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글을 쓸 때도 어떠한 이야기 전개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써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림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미들을 뿌려둔 채로 작업을 이어나갔다. 이는 연구자가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험이자 본인의 텍스트와 이미지가 가지는 의미를 잃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맥락을 벗어나 표현의 연구를 집중하였고, 직관적으로 쏟아내면서 작업의 양을 늘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탈맥락화 과정에서 우연히 생기고 우연은 필연이 되고 필연이 우연으로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작업 방향의 선례를 찾아보면서 소설의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결합은 20세기 초현실주의 화가 막스 에른스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의식중 생겨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프로타주, 포토몽타주 같은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에른스트가 쓴 콜라주-소설²⁾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 정은경, 「막스 에른스트(Max Ernst)의 콜라주-소설(Romans-Collages)에 나타난 장르의 확장」, 2003



【도판 1】 막스 에른스트(삽화) · 앙드레 브르통(글), 「제2차 초현실주의 선언문」의 속표지, 1929

“콜라주(collage)는 붙어의 ‘붙이다’의 의미를 갖는 coller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사전에서는 ‘아교(colle)로 붙임’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에른스트는 콜라주를 단순히 오려붙이기로 한정하지 않고 “부조리한 평면 위에서 전혀 관계없는 두 실재 간의 우연한 상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콜라주란 로트레아몽의 유명한 경구인 ‘해부대 위에서의 재봉틀과 우산의 우연한 만남과 같은 미’나 브르통이 초현실주의의 공식으로 열거한 ‘발작적인 미 (la beau convulsive)’와 ‘객관적 우연(Objet Trouvé)’이 결합하여 ‘불꽃의 시학’을 만들어내는 모든 방식을 포함하게 된다.“ 에른스트가 콜라주 기법을 조형 언어로 활용하여 장르의 확장을 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다.



【작품 3】 【작품 4】 실질적인 공간 1,2 , 각 53x43cm, 장지에 채색, 2017

【작품 3】 【작품 4】 는 에른스트가 사용한 콜라주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경 제목 없이 써놓은 산문 여러 작을 섞어서 순서 없이 배열하여 썼던 작업이다. 이 표현을 기준으로 의미가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자유로운 표현 드로잉을 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사진 작품을 감상할 때 관객이 작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작품을 받아들이는 것, 폰크툼³⁾ 을 유도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또 소설에서 열린 결말로 독자들의 각자 상상을 맡기는 시도와 유사하게 볼 수 있다.

3)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카메라 루시다>에서 내세운 개념으로, 「찌름」을 뜻하는 라틴어 「punctionem」에서 비롯됐다. 폰크툼은 똑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추정·해석할 수 있는 의미나 작가가 의도한 바를 그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지극히 개인적으로 작품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폰크툼은 「찌름」이라는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강한 인상이나 감정을 동반한다. 한편, 바르트는 폰크툼과 함께 스튜디오(studium)의 개념도 정의했는데, 이는 사진을 볼 때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공통된 느낌을 갖는 것, 작가가 의도한 바를 관객이 작가와 동일하게 느끼는 것을 뜻한다.
폰크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작품 5】 휘청휘청 27.9x21cm, 트레이싱지에 드로잉, 2017

【작품 5】는 연구자가 쓴 글을 사용하여 이미지화시켜본 것이다. 자취방에 세탁기를 돌리면서 구상했던 텍스트들을 담아보았다. 연구자는 세탁기의 통돌이를 둥근 모양으로 그림 중심에 손을 문질러서 표현하였으며, 세탁기를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들을 무작위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한 번 더 덮은 후, 다시 그 위에 텍스트를 썼다. 그러나 연구자가 먼저 설명하지 않았을 때 이 그림을 접한 사람들은 지구, 달 등 스스로 그림의 해석을 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굳이 의미와 상징을 설명하지 않고도 연구자의 그림이 스스로 해석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토대로 그림을 더 그려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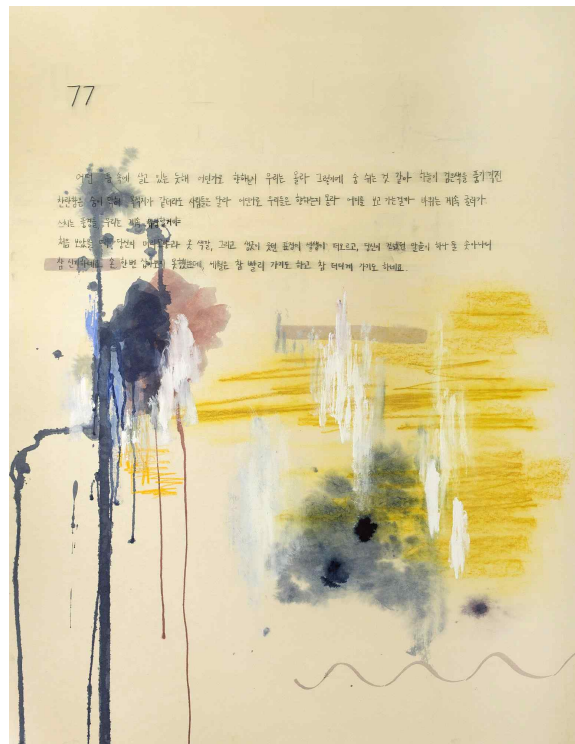


【작품 6】 겨우 존재하는, 193x130cm, 순지에 채색, 2017

【작품 6】은 연구자의 텍스트가 이미지로 변환하면서 인식하는 지점들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과슈와 잉크를 섞어 바탕을 만들고 작업노트들을 계속 읽으면서 선으로 늘어뜨리고 다시 호분으로 덮었다. 호분을 덮은 덩어리들은 거대한 존재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 덩어리들은 텍스트이자 이미지이며, 연구자의 회화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곤 한다.



【작품 7】 누군가의 77페이지 마틸다, 27x20cm, 책 위의 드로잉, 2017



【작품 8】 누군가의 77페이지 순지에 채색, 145x112cm, 2017

【작품 7】은 연구자가 중고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을 사 와서 펼치자마자 보인 페이지를 뜯어서 드로잉 하였다. 책은 작가들의 연애편지라는 제목이다. 77페이지는 박제천 시인이 부인에게 쓴 편지 일부다. 우연히 접한 것들이지만 편지 내용과 책의 오래됨이 절묘하게 느껴져 뜯어서 드로잉을 시도하였다. 【작품 8】은 【작품 7】을 크게 옮긴 것이다. 【작품 8】은 연구자가 쓴 글과 편지 내용을 같이 병치하였다. 오래된 책 한 페이지처럼 느껴지도록 작업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문단은 본인 글을 쓰고 두 번째 문단은 박제천 시인의 글을 그대로 옮겨 써서 병치하였다.

2) 오드라텍, 테이블

연구자 본인의 텍스트를 회화의 모든 기반으로 작업하려 하지만 작업 노트의 내용을 이미지에서는 읽을 수가 없고 점점 해체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롤랑 바르트의 『이미지와 글쓰기』를 보면 “언어체와 회화의 관계를 읽기 위해서, 즉 (암암리에) 그것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 불가피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체와 회화의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이 관계란 혹시 회화 그 자체는 아닌가?...” 이러한 의문을 기반으로 작업을 하면서 연구자는 회화에 대한 태도에 대해 고찰하며, 텍스트와 이미지가 서로 상호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유했다. 그러한 고민은 카프카 소설에 등장하는 ‘오드라텍’⁴⁾ 과도 같다고 느껴졌다. 2017년에 썼던 작가 노트 내용은 이렇게 기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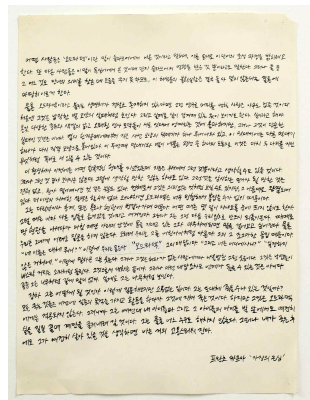
불완전하고 위태롭게 생겼으며 버석거리며 웃는다. 삶을 비껴나간다. 본인은 오드라텍 같은 회화를하기를 원한다. 거처 없이 계속 살아있길 바란다.

이러한 영향으로 연구자는 이미지와 텍스트는 어느 곳곳에나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 책을 읽는 순간도, 잠을 자기 전에도, 누군가와 했던 대화들도 모두가 회화라고 생각했다. 시와 소설을 가까이하면서 개성 있다고 생각하

4) 가장의 근심[Die Sorge des Hausvaters] 카프카전집 제1권 『변신』 카프카(1883-1924)가 1917년 집필, 1920년 『시골의사』에 수록한 단편소설. 오드라텍은 처음에는 사물로, 그 다음에는 인간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역설적 순환의 방식으로 오드라텍은 사물과 인간의 사이를 오가며, 이러한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에게 가장 근심스런 존재가 된다. 오드라텍을 가정 안에 적용시키려는 가족의 시도는 좌절되며 이 상징을 통해 카프카는 공동체로부터 고립된 자신을 표현하고자 했다. 가장의 근심 [Die Sorge des Hausvaters] (카프카 전집 사전, 2005. 12. 27., 프란츠 카프카, 이주동, 한석중, 오용록) (네이버지식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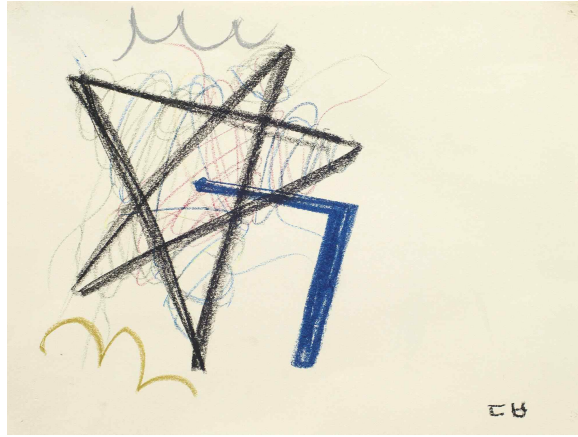
는 언어를 탐독하며 연구자만의 텍스트에 대해 풀어내는 방향을 오드라텍과 테이블 드로잉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주로 트레이싱지를 선택해서 드로잉을 많이 하였는데 잘 구겨지고, 불투명한 소재 자체가 주는 뿌연 느낌이 삶 자체라고 얘기 하고 싶기 때문이다. 마스킹 테이프로 한 드로잉들을 잘라서 스케치북이 주로 붙였었는데 이것은 전시공간을 옮겨 다니며 붙였다 떼어내었다 하는 것은 그림의 이동성을 생각했으며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함도 있다.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깊은 고민과 생각들로 무겁지 않게 보이기 위해 드로잉을 선택하였다. 점, 선, 면이 회화의 시작임을 잊지 않고 회화에 녹여내고자 한다. 연구자가 카프카나 프랑시스 풍주에 영향 받았다고 직접적으 드러내고 작업한 것들 역시 본인의 방향을 뚜렷하게 보고 그 너머의 의미를 선회하고자 하였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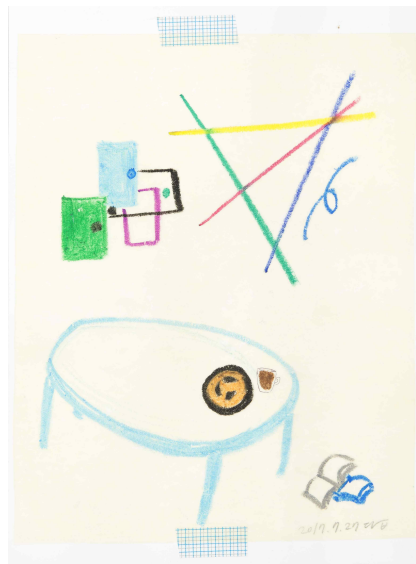


【작품 9】 오드라텍 프란츠 카프카-1, 35x26cm, 아트지에 드로잉, 2017

5) 연구자는 프랑시스 풍주 시인 외에도 박인환, 박상순, 기형도의 시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었다. 【작품 9】은 카프카의 단편 소설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었고, 【작품 10】는 카프카 소설에 등장하는 것을 연구자의 상상으로 드로잉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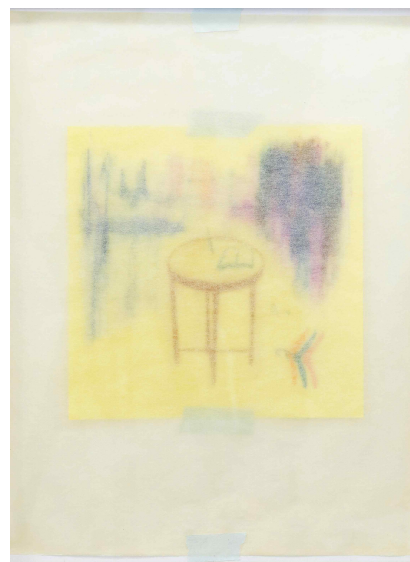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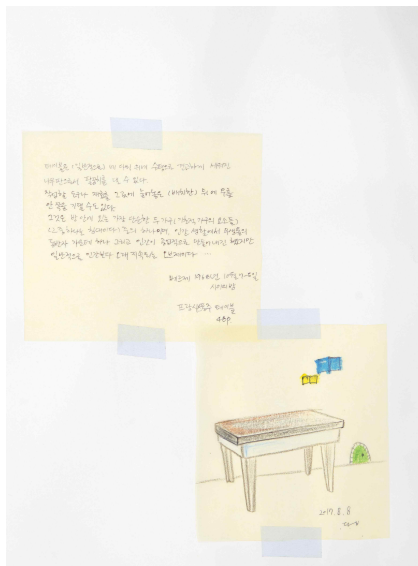
【작품 10】 오드라텍 프란츠 카프카-2, 35x26cm, 아트지에 드로잉, 2017



【작품 11】 Table, 29×21cm, 트레이싱지에 드로잉, 2017



【작품 12】 【작품 13】 Table2, 3, 29×21cm, 트레이싱지에 드로잉. 2017



【작품 14】 【작품 15】 Table13, 14 29×21cm, 트레이싱지에 드로잉,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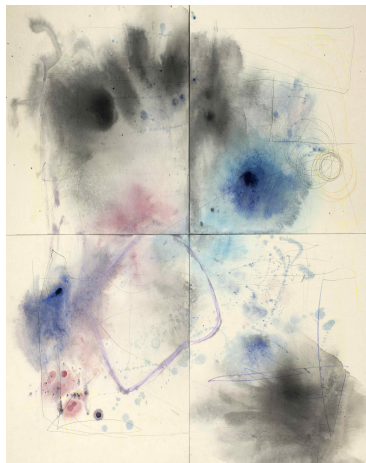
【작품 11】에서 【작품 15】에서는 테이블 드로잉을 한 것이며 프랑시스 풍주 시인의 시 『테이블』에 대해 묘사한 책을 읽고 영감을 받은 것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책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는 등의 시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회화에 대한 영감을 받은 것을 직접적으로 옮기며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를 면밀히 파고들고자한 시도이기도 하다. 회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묻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드로잉을 거쳤다. 이 작업들 역시 트레이싱지를 활용하였으며, 트레이싱지는 물 머금으면 줄어들기 때문에 볼펜과 크레파스 등, 건식 재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3) 밤과 소행성

밤과 관련한 연작은 다음은 연구자가 2017년에 쓴 산문 글 ‘박인환의 시 밤의 미매장-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주검이 아니라 장례식장이다.’는 이다.

주검은 차마 말을 다 잊지 못한 것처럼 평안한 눈으로 입을 연 채 굳어 있다. 아직 심장은 따스하다고 울부짖으며 쓰다듬는 손들이 수도꼭지를 틀었다. 줄줄 새어 나오는 뜨거운 물들은 마를 새가 없다. 우리를 괴롭게 한 건 그의 주검이 아니었다. 괴로운 건 따로 있었다. 주검은 말이 없는 만큼 주고받는 말들은 시끄럽고, 슬펐고, 상스러웠고, 아름다웠다. 휘청거리는 몸들은 또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다. 그의 주검은 여전히 말이 없다. 이것은 현정시가 아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동정도 아니다.

위 산문 글은 박인환 시인의 시 제목만을 가져와 본인이 느낀 죽음을 풀어낸 것이다, 밤에 대해서와 관계 시리즈의 기저에 깔린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작품 16】 밤에 대해서 #1, 53x45cm, 순지에 채색, 2017



【작품 17】 【작품 18】 밤에 대해서 #2, #3 53x45cm, 순지에 채색, 2017



【작품 19】 관계 #1, 192x132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20】 관계 #2, #3 willing n dealing <멤도는 것> installation,
장지에 채색, 209x152cm, 2018

【작품 16】에서 【작품 20】은 제목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재료적인 물성, 특성에 집중해 보자 하였으며, 이미지를 먼저 만든 후에 텍스트로 선을 만드는 시도와 텍스트를 기반으로 두고 이미지들에 대한 작업도 진행해 보았다. 【작품 16】에서 【작품 20】은 누어서 스프레이로 물을 일부러 많이 뿌려 물을 고이게 다음 먹과 잉크를 드리핑 기법으로 그림의 흐름을 만들었고 텍스트들을 선으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풀어서 드로잉을 하였다.



【작품 21】 불일치(부제 밤), 123x111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22】 밤과 새벽, 118x78cm, 트레이싱지에 채색, 2018



【작품 23】 이 행하는 시간, 118x90cm, 크라프트지에 채색, 2018

이러한 과정에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언제나 일치하지 않고 빗겨나가는 다른 결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생겨났다. 【작품 21】에서 【작품 23】은 그러한 충돌에서 나왔다. 【작품 21】은 밤에 대해서 작업을 통해 텍스트와 이미지가 불일치일 때 나오는 이미지의 첫 시작이었다. 종이를 아예 구겼다가 펴서 붓질하였고 종이를 뜯어내 끝을 너털너털하게 했다. 이 작업을 통해 이전에는 어떤 현상을 관념에서 이해하고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했다. 한발 더 나아가 【작품 22】, 【작품 23】을 통해 또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느꼈다. 2018년도 작품에서는 트레이싱지, 크라프트지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탐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작품 24】 소행성#1, 53x45cm, 장지에 채색, 2017

소행성 시리즈는 연구자가 삶에 대한 존재에 대해 고찰을 하면서 접했던 뉴스 기사가 바탕이며 소멸에 대한 회의적인 모습과 동시에 어떻게든 살아

가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내 보고자 시작한 연작이다. 그림을 그리면서 한 의미에 집중하고자 할 때 계속 다른 것들이 튀어나온다. 그것은 전날 읽었던 뉴스 기사일 때도 있으며, 친구와 했던 대화이기도 하고, 어느 날에 보았던 전시들이 마구잡이로 떠오르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망망대해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연구자는 떨쳐낼 수가 없게 된다. 3년 전쯤, 지구로 소행성이 충돌하여 멸망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그것은 마치 연구자에게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기사 같이 느껴진다. 자아를 대변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며, 어딘가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부유하는 비정형적인 형태로 담고자 한 것이 이 연작의 시작이다.



【작품 25】 【작품 26】 소행성#2, #3, 53x45cm, 장지에 채색, 2017



【작품 27】 소행성 #4, 89x70cm, 트레이싱지 채색, 2018



【작품 28】 소행성 #5-1, 96x65cm, 2합장지에 채색, 2018



【작품 29】 소행성 #5-2, 96x65cm, 2합장지에 채색, 2018



【작품 30】 소행성 #6, 152x209cm, 장지에 혼합재료, 2019

2018년도 작업노트에서는 회화에 대한 연구자에 마음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글이 늘어났으며 이는 그 중 하나이다.

 꺾가에 분명 소나기가 내렸는데 창밖은 구름 한 점 없었다. 금붕어가 빠끔했다 그와 나는 지금 말하고 있다 반으로 쪼개져 버린 선인장 속은 썩어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달로 도망치기로 했다 누군가가 저건 달이 아니라 답했다 그럼 어디로 가야하나요 선로 밖으로 나왔다 자갈들이 잘그락 잘그락거렸다. 문장들이 심장에서 팍콘처럼 튀어 올랐다. 나는 그것들을 주워 손에 쥐고 걸었다.

연구자는 텍스트를 이미지와 따로 있어도 서로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하였고 이러한 시도들은 그 외의 시도들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4) 그 외의 실험

2018년도 개인전 <이탈자>에서는 전시 타이틀 외에 캡션이나 작품 설명 같은 모든 텍스트를 제외하고 전시를 진행했다. 【작품 35】에서 설치한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규격이나 텍스트가 없이 보는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텍스트를 다 뺀 공간에서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의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본인의 작업은 의도와 의미를 배제를 하고 관람하는 주체에게 능동적인 관람을 유도하고자 하였고 연구자는 이미지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작품 31】 이탈자 전시 installation, 복합문화공간 빈칸, 2018

연구자는 작업 해오면서 내면을 담아서 쏟아내더라도 그것이 제 3자에게, 관객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온전히 의미가 전달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

다. 의미는 계속 미끄러지고 본인에게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오가며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타인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 또 다른 방향성을 열어야 하는 기회가 되었다.



【작품 32】 응어리#1, 118x78cm, 트레이싱지 채색,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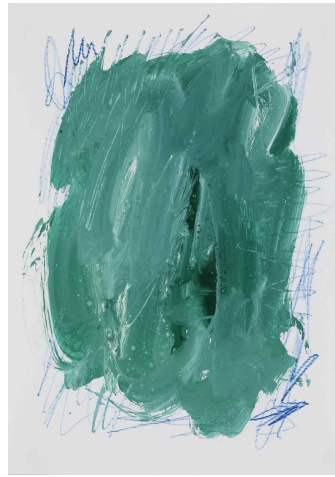
【작품 33】 응어리#2, 118x78cm, 트레이싱지 채색, 2018

【작품 32】 【작품 33】 은 의미 전달에 대한 미끄러짐에 대한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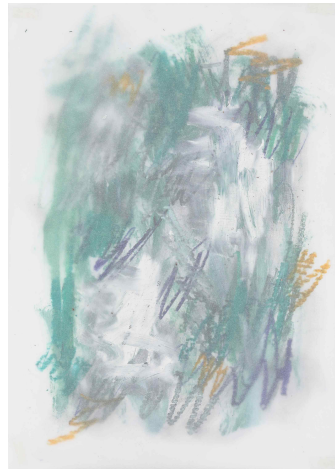
바닥에 누인 채 작업하였고 트레이싱지가 물에 닿으면 구겨지는 성질을 보여주고자 과슈 물감을 진득하게 사용하여 실험해보았다. 【작품 34】는 커튼 봉에 매달아서 벽에서 약간 띄워서 작업했고 아크릴스프레이, 콩테 등 재료에 대한 탐구를 더했으며 소설의 갈등 구조에 부딪힌 군상을 생각하며 작업을 하였다.



【작품 34】 element of anxiety, 193x130cm, 장지에 채색, 2019



【작품 35】 【작품 36】 자유형1, 2, 25x21cm, 아트지에 드로잉, 2019



【작품 37】 【작품 38】 자유형3, 4, 25x21cm, 아트지에 드로잉, 2019

【작품 35】에서 【작품 38】은 이야기의 구조 속에 유연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작품 34】와 같은 맥락을 작업하였다.



【작품 39】 레트로봉황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installation, 혼합매체
가변설치, 2019



【작품 40】 레트로봉황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installation, 혼합매체
가변설치, 2019

19년도 하반기에 들어간 경남 신생 레지던시 프로그램 레트로 봉황에서는
그림이 공간과 만나면서 달라지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작품 39】
【작품 40】가 오픈 스튜디오 때 시도한 실험이다. 포장지를 구겨서한 드로
잉을 옥상에 빨래를 널듯이 널어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드로잉들을 만들

기에 최적이었다. 작업실은 옛날 가정집을 사용하였는데 쓰지 않는 부엌을 활용하였다. 이것은 회화가 어느 도처에 있다는 연구자의 생각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생각하는 날 것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었다.



【작품 41】 사랑의 존재, 가변크기, 혼합매체, 2019

레지던시에서 주어진 주제에 맞춰 작업을 해야 하는 새로운 제약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자가 생각한 사랑에 대한 글을 썼다.

오늘 당신이 내게 오는 날이에요. 당신은 내게 0이지만, 0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떨림을 영원한 기찻길에 두고 싶어요. 아 미지의 방에 당신과 나의 이야기를 숨겨두었어요. 당신은 마음을 찾아보세요. 저는 문을 닫을게요. 눈과 입이, 혀가 만났을 때 이미 영원을 바라봤을지도 몰라요. 왜 0은 연기 같나요. 나는 아침이 오면 0, 당신이 지나가면 울게요.

【작품 41】은 사랑의 존재에 대해서 앞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사랑에 대해서 쓴 글을 투명 필름에 인쇄한 것 그대로를 뜯어진 종이에 붙였고 다시 각목 사이에 붙였다. 작품 사진 아래 각목에 붙어있는 형상은 휘어진 사람의 척추를 형상화 하였으며 사랑을 찾아 헤매는 누군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42】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문예부> 강보란 외 13명 케이크와 얼음조각과 물고기와 갈대, 가변크기, 혼합매체, 2019

경남 레지던시 지역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의 산문 케이크와 얼음조각과 물고기와 갈대 글을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문예부 <중앙문예> 학생들과 함께 협업으로 창작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진행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의 글을 보고 같이 이미지를 그려보기와 연구자의 그림을 보고 글을 쓰는 것도 자신의 글을 연구자에게 주면 연구자가 이미지를 만드는 세 가지 방안 중 선택을 할 수 있게 진행하였다.

얼룩 속에 당신 불투명한 이야기로 덮여요 목화밭은 불면 사라져버릴 것 같

아서 찢어버렸어요 단편과 단편과 단편, 떨어지는 종이 색깔과 선과 점과 선이 부딪쳐서 케이크와 얼음조각과 물고기와 갈대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당신이 되고, 내가 되고. 분리가 되었다가 합쳐졌다가 시끄러운 카페 속의 무력감으로 이불을 덮고 깊은 숨을 쉰 거리는 스투키 가지런히 누워있는 아이 보리쿠션 물소리 과자가 녹녹해질 것 같던 습기 주머니에서 나온 낙엽 바싹 마른 고양이 물을 머금은 단어 이따금 저 너머의 발자국 케이크와 얼음조각과 물고기와 갈대는 여전히요 흠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아스팔트 균열은 장마전선 같아요 당신이 완성될 때까지 박하사탕은 노래해요 미명이 찾아오면 조금 알지도 몰라요 모과가 중력에 누워버려요 달과 원형 시계가 겹쳐 버리더니 시계의 초침이 녹아내렸고 분침도 따라 녹아 내렸어요 긴 꿈을 꾸어요

위의 연구자의 글을 통해 중앙문예 학생들과 같이 글이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가 글로 환원되는 과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작가의 창작물이 타인에게 인식되고 새롭게 환원되는 과정들을 공유 하였고 창작의 지점들을 함께 넓혀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이 연구자는 의미 전달이 온전히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내면에서 느껴지는 것은 비슷하게 이미지로 도출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통해 내면으로 다가가는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외적인 실험들을 토대로 설치를 가미하여 회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더 날 것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꺼낼 수 있게 되었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자가 해온 작업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를 통해 회화를 바라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서사를 그림 속에 담고는 있지만 다른 이에게 납득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본인이 쓴 텍스트들을 텍스트에 국한 되어 이미지를 바라보는 것은 원치 않은 방향이라 제대로 텍스트 자체만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장치적으로 최소한만 노출했다. 본 논문에 텍스트를 노출시킴으로써 이미지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연구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미지가 있으면 텍스트도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되고 텍스트가 있으면 이미지도 당연하게 생기게 되는 것을 작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2016년도는 연구자가 쓴 글을 조형언어로 사용하는 지점을 찾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묘사를 해야 한다던지, 개인의 의식으로 갇힌 틀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2017년에서 2019년도는 내용과 형식 충돌로 나온 이미지들과 텍스트들의 혼합을 통해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더불어 공간과 회화에 대한 탐구도 내비쳤다. 연구자가 담고자 하는 의미들을 소설어 위에 본인의 회화를 두고 설명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본인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새로운 상상을 덧댄다. 그리고 그것들은 글의 소재가 된다. 수십 개의 이야기들이 연구자의 머릿속을 떠돌다가 사라져버린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상은 펼쳐내려고 하면 할수록 선명해지는 것들이 된다. 반복의 딜레마에 빠져 버린다. 그런 잔상들은 기록이 되고 글이 되기도 하며 그림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텍스트와 이미지를 묘하게 일치하게 유도하려고 한다. 그리고 분리하였을 때도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구자의 작품을 능동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자하며, 소설 같은 그림을, 그림 같은 소설을 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더욱 급변하고 있다. 예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며 결국은 자신만의 언어와 가치를 끊임없이 정진하며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를 통해 관람자들이 본인의 그림을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사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다른 다양한 장르들과 접목시켜 본인의 회화의 영역을 넓혀보고 싶다는 취지를 밝히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롤랑 바르트, 김인식 번역, 『이미지와 글쓰기』, 세계사, 1993

호사카즈시 지음 정재윤 옮김. 『소설 네 열정을 바쳐라』, 섬앤섬, 2007

학술자료

정은경 , 「막스 에른스트(Max Ernst)의 콜라주-소설(Romans-Collages)에 나타난 장르의 확장」, 2003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ABSTRACT

A Study of Painting by Text and Image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Own Works -

Jeon Da bin

Department of Fine arts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Based on the researcher's own work, this paper seeks to study painting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ext and imagery. The researcher has written both poems and novels, and as she transfers her writings to artworks, she contemp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cript and images. The researcher believes that painting lies in the middle of text and images, and that based on this assumption, she views, observes, and paints pictures of life. Within regards to the researcher's own thoughts, the researcher tries to create artwork while thinking about the boundaries that lie between novels, text and images. These experiments involve writing novels and painting at the same time. She also tries to separate the two in order to find their corresponding interrelationships.

The researcher's prose is composed by collecting fragments of one's intimate stories. In some cases, the reason for existence, social phenomena, and personal stories that transpire around the researcher inevitably become the contents of her work. Through metaphors, analogies, and her own intuition the researcher attempts to unravel everything in life; life's moments, the meaning of existence, etc.

The researcher records and systematizes language, constructs fiction, poetry, and other stories, and then replaces these materials with paintings and imagery. Painting is the product of creation as well as both fiction and poetry. People converse, are created, think, and behave in accordance with language. However, people can feel more real in a fictional world because fiction is not directly controlled by one's reality.

From 2016 to 2019, I wanted to present my thoughts in regards to the content I am trying to establish and how to approach the expressions in which I want to convey.